

황금연휴 87만명 여수를 즐긴다



거북선축제 전야제 대동한마당



국궁 활쏘기 체험행사



통제영길놀이서 시민과 함께 한 주철현 시장

거북선축제·범선축제 열기
밤바다·낭만포차·버스킹 만끽
숙박업소·식당 등 연일 매진
명품 관광도시 지역경제 들쭉

‘여수밤바다’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른 여수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2년 연속 1000만 관광객 돌파와 함께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4일 연속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주요 관광지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5월 첫 연휴 기간 관광객 수십만명 여수 방문=5월 황금연휴(5일~8일)동안 87만여명이 여수를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오동도와 세계 박람회장, 향일암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는 34만여명이었으며, 지난 6일 열린 ‘제50회 거북선축제’ 전야제와 본축제(7일) 이틀동안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과 시민은 33만5000여명에 이른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이다. 거북선축제와 함께 열린 범선축제에도 10만6200여명이 다녀갔다.

특히 이번 연휴동안 밤 12시가 넘도록 수많은 인파들이 축제장소인 여수해양공원 등 원도심을 가득 채우면서 마치 서울 변화가인 명동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참여형 축제로 가족단위 관광객 유인 성공=여수시는 일찌감치 5월 첫 연휴를 포함해 14일까지 이어지는 ‘2016 봄 여행주간’을 맞아 여수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손님맞이 체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여수신항에서 ‘2016여수범선축제’를 열고 러시아 초대형 범선 팔라다호(2987톤) 등 범선 13척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50회 여수거북



여수 거북선축제 전야제 행사로 열린 통제영길놀이.

선축제’를 개최해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냈다.

같은 기간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물씬 느끼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낭만버스커 여수밤바다 거리문화공연’과 ‘여수밤바다 낭만 포차’도 운영돼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주요 숙박업소 매진~지역경제에도 큰 보탬=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

연휴 기간 지역 내 17개 호텔·콘도의 1440실 평균 투숙률은 92%를 기록했으며, 특히 엠블·디오션·히든베이 등 특급호텔을 비롯한 유명 콘도와 휴양림 등은 연휴 내내 100%의 투숙률

을 보였다.

여수 도심 식당가와 전통시장도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여수시는 5월 여행주간 호텔과 유람선 등 14개 관광업체와 제휴해 20~50%까지 특별한인 행사도 진행중이다.

김광중 여수시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황금연휴 기간 여수를 찾은 모든 관광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밤바다와 명품 관광상품으로 인기몰이=인기 그룹 ‘버스커버스커’가 아름다운 여수 풍광을 소재로 ‘여수 밤바다’를 발표하면서 전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여수 하면 밤바다’

라는 공식마저 성립됐다.

또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동백꽃의 고향’ 오동도, 조선 수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남관, 전국최고 일출명소인 천년고찰 향일암 등 기존 유명 관광지의 야경도 덩달아 인기 몰이 중이다.

여수바람피리 기간 인기몰이 주역이었던 ‘빅오(BIG-O)쇼’도 지난 4월 개장해 여수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천혜 절경 간직한 365개 섬~여수관광 백미=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365개의 섬도 여수 관광의 백미다. 특히 삼산면 거문도·백도는 한국 관광공사가 전국 대표 관광지로 선정할 곳이기도 하다.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등 세 개의 섬이 바다 위에 병풍을 친 듯 자리 잡고 있다. 거문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1905년) 불을 밝힌 거문도 등대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국가 명승지 제7호 백도는 기암괴석과 천혜의 비경으로 명성을 떨치며 거문도 여행의 필수코스라 각광받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맞춤형 축제로 변신한 거북선 축제 등과 여수밤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 신선회 관광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지나해 달성한 1300만 관광객 시대를 기점으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관광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램프의 요정’ 된 LG화학

지역청소년 소원 들어주는 사랑나눔 활발
아동센터에 소방용품·가전기기 등 지원



LG화학 여수공장 봉사단이 최근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대표기업인 LG화학 여수공장이 수년째 지역 청소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나눔을 펼치고 있다.

9일 LG화학에 따르면 여수공장 봉사단(단장 주재임원 안태성 전무)은 지난달 25일부터 3주동안 여수지역 청소년의 방과후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돼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활동에 나섰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화재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용품 지원’을 주제로 안전한 지역 아동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이 마련했다.

LG화학 봉사단은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단독형 화재감지기 및 투척용 소화기 등을 비롯한 에어컨, 감지방장고, 노트북, 전자드럼 등 다양한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계단 보수작업 등 환경개선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내 13개 결연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젊은 꿈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지니데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LG화학의 청소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해 7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안태성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전무)은 “지역대표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니데이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람 LG’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청소년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디오션리조트, 보육원생 워터파크 초청

지역대표 종합 휴양시설인 여수디오션리조트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무료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9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수보육원생 40여명을 초청해 워터파크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디오션리조트는 이날 보육원생들에게 국내 최고 물놀이 시설인 디오션 워터파크 무료입장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유광현 여수디오션리조트 부부장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초청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오션리조트는 매년 지역 내 보육원과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워터파크 무료체험 행사 등 행복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축**

- ### 모집
- ####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